



박하선의 **사진풍경**

다큐멘터리 사진작가

# 한 아픔의 꽃을 드리지요



긴 터널이었습니다  
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 
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답답해했고  
눈앞에서 무너지는 공동체의 가치에  
속수무책으로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 
품격을 잃고  
진실은 짓밟히며  
외세에 기웃거리는 매국정치가 극보수의 이름 아래  
당당히 자리를 차지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 
말 그대로  
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지요

힘든 싸움이었지만  
우리는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 
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 
단죄하고  
청산하고  
포용하면서  
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 
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
나라 걱정애 잠 못 이루던 밤  
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견디던 날들...  
마음고생 많으셨지요

자, 이제는 웃읍시다  
오늘, 이 기쁜 시작의 날에  
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 
한 아픔의 꽃을 드리지요  
감사의 꽃, 연대의 꽃, 희망의 꽃을.

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